

“OTT에 밀린 유료방송 살리자”… 방미통위, 민관협의체 가동

업계 애로사항·규제 개선방안 논의
요금·채널 운용 등 규제 완화 요구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10월 시행

정부의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으로 IPTV와 종합 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규제 창구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된 가운데 최근 정책적 행보가 구체화되고 있어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일 유료 방송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의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해 유료 방송 업계의 애로사항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다.

그간 유료방송 정책은 사업 영역과 규



정부의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썬GPT로 생성한 이미지

제 사안에 따라 여러 부처·기관의 논의가 얹히면서 일관된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IPTV 주무부처는 과기정통부가, SO·위성 등은 방통위가 담당하며 정책 창구가 분산돼 있었다.

그러다 지난 10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방미통위가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 정책과 규제를 아우르는 구조가 갖춰지게 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부처 간 이견이 줄고 시장 변화에 맞춘 규제 개선이 가능해

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유료방송 업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은 OTT 중심의 경쟁 환경에 걸맞는 제도적 개선이다. 방송은 규제 산업에 속하는 반면 OTT는 부가통신서비스로 구분돼 자유로운 시장 확장이 가능하다. 스포츠 단독 중계는 실시간 시청 영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광고형 요금제 도입은 수익성 확보에 유리하다.

특히 유료방송은 요금 인상이나 신규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이용 요금 등에 대해 정부의 사전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SO 사업자들은 최근 10년간 영업 이익이 97% 급감하며 경영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의무적으로 공익 채널을 편성해야 하는 등 채널 운용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 밖에 방송미디어발전 기금과 콘텐츠 사용료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구조 등이 과제다.

앞으로 규제 완화 논의는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6월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 산하 미디어발전위원회를 올해 하반기 중 출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OTT 확산 및 유료방송 가입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유료방송 정책연구반을 구성했으며, 이를 통해 규제 형평성을 위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달에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방송광고 일총량제를 채널별 1일 방송시간의 20%로 확대하고, 중간광고가 가능한 프로그램의 길이를 45분에서 30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행은 오는 10월 예정이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팀네이버 디지털트윈, 사우디 플랫폼 채택

사업 확대·현지 맞춤형 기술 고도화
지자체 간 데이터·플랫폼 경험 공유

팀네이버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국가 표준 플랫폼으로 채택됐다. 2023년 현지 사업 수주 이후 3년 만에 주요 도시를 넘어 사우디 전역으로 기술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팀네이버는 자사의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트윈 플랫폼이 사우디아라비아 디지털 정부청(DGA)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용 플랫폼으로 공식 승인을 받아 ‘국가 디지털트윈 표준 플랫폼’으로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사우디 자치행정주책부는 최근 각 지자체에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시 팀네이버 플랫폼을 우선 도입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각 지자체가 디지털트윈 사업을 추진할 때 팀네이버 플랫폼을 우선 검토해 지방정부 간 중복 투자를 줄이고, 국가 차원에서 기술 표준과 방법론을 통일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지방정부가



지난해 5월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주택공사와 전략합작법인 네이버 이노베이션 설립 계약을 맺었다.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과 디지털 도시계획 관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연계하기 위한 조치다.

사우디 정부는 팀네이버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도시계획과 도시 운영, 자산·인프라 관리, 도시 안전 등 지방 행정 업무를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자체 간 데이터와 플랫폼 운용 경험도 공유한다.

팀네이버는 지난 2023년 10월 사우디 자치행정주책부로부터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주하며 현지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 2025년 메카·메디나·제다 등 3개 도시의 구축을 완료했다. 구축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11배가 넘는 6800㎢로, 92만동 이상의 건물을 디지털트윈으로 구현했다.

팀네이버는 이번 국가 표준 플랫폼 채택을 계기로 사우디 정부 및 현지 파트너와 협력을 확대한다. 대규모 도시 디지털트윈 구축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현지 맞춤형 기술 고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AI 스타트업 16곳과 AX 사업 협력

피지컬 AI·보안 등 7개 분야 협업

KT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K-PATH 2026’ 참여 스타트업 16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KT의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파트너로 육성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화 기회를 모색하는 게 목표다.

지난 6월 참여 기업을 모집해 193개 공모 기업 가운데 16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기술 경쟁력,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 사업화 가능성, 협업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선발 분야는 ▲엔터프라이즈 AI·에이전트 ▲피지컬 AI·로보틱스 ▲AI용 데이터 ▲AI 트러스트·보안 ▲AI 인프라·모델 ▲산업 특화 버티컬 AI ▲AI ESG 등 7개다.

최종 선정 기업은 사이오니아아이(기업용 생성형 AI 플랫폼), 알고리즘랩스(산업 적용형 AI 에이전트), 스카이인텔리전스(로봇 학습용 합성데이터 기술), 프라이빗에이아이(AI 가드레일·프라이버시

기술) 등이 포함됐다. 텐(GPU 자원 관리·AI 인프라 최적화), 씨플랫에이아이(다국어 AI 상담사 솔루션)도 선정됐다.

이들은 KT 인공지능 전환 사업과 연계한 기술 검증과 각종 프로젝트 수행 등을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KT 사업 부서와 연결해 고객과 관련한 프로젝트 협업을 추진한다. 오는 9월부터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빅윈’ 과제를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검토 과제는 ▲온톨로지 기반 데이터 분석 솔루션 검증 ▲재난·안전·소방·안보 분야 AI 디지털트윈 공동 실증 ▲KT 제조 고객망과 연계한 스마트팩토리·AI 기반 제조 혁신 ▲고령층 생활 교육과 주문·결제를 지원하는 AI 키오스크 공동 개발 등이다.

KT는 이번 프로그램을 향후 중장기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업부서와 스타트업 간 성과 사례는 오는 10월 열리는 ‘K-PATH 2026’에서 공개하고 내년에는 연구개발(R&D) 과제를 포함한 2차 협력을 추진한다.

/조민선 기자

LGU+, AI로 요양원·레지던스 건물 관리

‘AI빌딩넷 바이 익시’ 출시

LG유플러스가 요양원, 레지던스 등 건물 관리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지원에 나선다. LG유플러스는 20일 통합 건물 관리 솔루션 ‘AI빌딩넷 바이 익시(by ixi)’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AI빌딩넷 바이 익시는 센서, 폐쇄회로 TV(CCTV), 로봇 등 건물 내 사물인터넷(IoT) 기기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시설 운영 효율화와 이용자 경험 개선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향후 시니어 케어시설부터 레지던스, 오피스, 상업시설 등까지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우선 시니어 케어시설에 전용 솔루션 ‘AI빌딩넷 바이 익시-웰니스 노트’를 선보인다. 건강 모니터링 센서 등 돌봄 사물인터넷(IoT) 기기에서 수집한 정보를 AI



LG유플러스 직원들이 신한라이프케어 프리미엄 요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인 ‘AI빌딩넷 by ixi-웰니스 노트’를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가 실시간 분석해 입주자 건강 상태와 이상 징후를 파악하도록 지원한다. 입주자별 생활 패턴과 건강 상태 변화를 확인하고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다.

관리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주자별 업무 배정과 완료 여부, 인수인계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NHN KCP-라인 넥스트 스테이블코인 결제 확대

종합결제기업 NHN KCP가 라인 넥스트와 손잡고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실제 사용처 확대에 나선다.

NHN KCP는 글로벌 웹3 플랫폼 기업 라인 넥스트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6월 체결된 이번 협약은 NHN KCP의 국내 가맹점 및 결제 인프라와 라인 넥스트가 운영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지갑 ‘유니파이’ 기술을 연동하는 것이 핵심이다. 양사는 향후 NHN KCP가 유통에 참여하는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을 라인 넥스트의 글로벌 지갑 네트워크로 확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라인 넥스트의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 ‘유니파이페이’ 기술을 NHN KCP 결제장에 연동한다.

/최빛나 기자

SKT, 내년 3G 종료… LTE·5G 전환 지원

기존 결합 할인·장기고객 혜택 유지

SK텔레콤이 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중단하고 LTE·5G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K텔레콤은 2027년 말을 목표로 3G 서비스를 점차 종료한다고 20일 밝혔다. 3G 서비스 종료 추진 배경은 3G 가입자 및 트래픽 감소, 단말·장비 노후화, 차세대 네트워크 중심으로의 통신 환경 변화 등이다. 해외의 경우 미국, 일본, 영국 내 주요 이동 통신사들도 이용자 감소와 주파수 활용 효율화 등을 이유로 3G 서비스를 종료했다.

대상은 3G 단말과 HD 보이스를 지원하지 않는 LTE 단말이다. HD 보이스 미지원 단말은 3G 망으로 음성 통화를 제공해 서비스 이용이 중단된다.

동시에 LTE·5G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

그램도 마련했다. 기존 결합 할인과 장기 고객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의 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만 65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뉴실버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후 요금제 변경이 없으면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통신사 이동이나 기존 3G 서비스를 해지하는 고객은 해지지원금 4만원을 지급한다. 서비스 전환, 해지 등에 따른 위약금도 면제다.

SK텔레콤은 3G 가입자에게 점진적인 서비스 종료 계획과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MMS), T월드 홈페이지 및 앱, 우편·이메일 요금 안내서 등에서 받아 볼 수 있다.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 고객에게는 별도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민선 기자